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 목장교회 나눔지

여섯 번째 나눔지

[4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 얼음 깨기

## ‘고난에서 부활까지’

## 교회행사

이번 주간에는 [종려주일 - 고난 주간 - 부활주일]로 이어집니다.  
귀한 시간을 다시 한 번 주님께 올려드리며 어떻게 함께할지 생각해봅니다.

1\_ 내 삶의 따뜻했던 순간(행복, 기쁨) / 차가웠던 순간(어려움, 고난)은 언제였나요? (함께 나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2\_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자리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 4월

- 2일 종려주일/성찬식
- 3-8일 고말기  
“고난주간 말씀과 기도”
- 9일 부활 주일

### 5월

- 7-28일 오렌지 축제  
: 다음세대를 위한  
가정과 교회의 콜라보

## 경배 찬양

## “하늘의 문을 여소서”(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 선교

## [박영주 선교사]

### 캄보디아

1. 박영주, 김송희 선교사가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충만하도록
2. 낄땡스프 여호수아센터 통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3. 새롭게 개척할 포티마을에 온전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 소식

### 1. 고난주간 말씀과 기도회

4월 3일~ 4월 7일 저녁 7:30~9:00까지 “우리 더 가까이\_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성경의 가르침”의 주제로 말씀 강행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고난 주간을 맞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뜻 깊은 여정이 되기 바랍니다.

### 2. 제직회

정기 제직회가 오는 4월 12일 수요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 3. 결혼 예비학교

하나님 나라 가정을 준비하는 복된 시간에 결혼예비 커플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정 : 5/13~6/10 (5/27 휴강) 시간 : 14:00 - 19:00

## 한문장 큰 울림

그리스도께서 바로 옆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들을 수만 있다면, 수많은  
원수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로버트 맥체인 (1813-1843)  
스코틀랜드교회 목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8절)

겿세마네 동산의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찬송가 457장 [겿세마네 동산의]에서는 우리가 함께하는 본문 말씀을 주제로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제자들의 술한 배신을 뒤로 한 채 겿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나를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삶'을 향해 한걸음을 다시금 내딛게 될 것입니다.

“겿세마네”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흔하게 붙여졌던 지명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겿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이 동산은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간구의 동산**으로 불리게 되지요.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이자, 영혼의 호흡임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 기도하는 사람'은 사라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할까요?**

겿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린 예수님의 간구를 통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동기와 목적, 태도를 다시 한 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나아가, 그저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정도의 피상적인 기도 생활을 넘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생생한 진정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목장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1\_고민과 슬픔 속에, 기도하셨습니다. (37절)

본문의 “고민과 슬픔”은 주님께서 이 세상 죄를 지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님을 외면하심에 대한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죄도 넘어갈 수도, 함께할 수도 없으십니다. 죄인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하시며, 분명히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이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숨기신 채, 철저히 처절하게 심판하십니다. 이 깊은 소외와 절망 앞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어린아이처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질문] 제자들의 육신의 약함 속에 세 번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은 무엇이었을까요?**

### 2\_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39절)

예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모습은 당시 성전에서 여호와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시간에 예배하던 자세와 일치합니다. 이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의 표시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확고한 고백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얼굴이 가려진 슬픔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간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는 아버지로부터의 외면이야말로 육체적 아픔과 비할 수 없는 고통이고 비참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눔] 1) 한 주간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했는지 나누어봅시다.  
(=> 기도의 제목, 기도의 때, 나의 동기를 돌아보며)  
2) '만왕의 왕이심에도, 엎드려 기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배우고 생각하게된 점을 나누어 봅시다.**

### 3\_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4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간구하실 때는 처절하게 기도하셨으나, 그 뜻이 확정된 순간에는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기에 괴로워하셨으나,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십니다. 그 뜻을 오롯이 받들어, 순종의 한걸음을 내딛으십니다.

**[나눔]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갈 '나의 겿세마네'는 어디인가요?**

고민과 슬픔	'고민과 슬픔'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신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	오늘 나의 기도의 동기와 자세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옵소서.
순종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주님을 봅시다. 부르신 '나의 겿세마네'에서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